

대행 스님

어떠한 게 닥쳐도 피하지 말라

육법공양을 올리는 의미

질문 해마다 촛불재를 올리고 있는데 보통 사찰에서는 큰 행사를 할 때 육법공양을 올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원에서 천도재를 모실 때도 영단에 여섯 가지 공양을 올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육법공양의 의미를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답변 항상 얘기했듯이 이 향은 양식을 삼아서 하는 겁니다. 촛불은 자기 마음을 밝히기 위해서고. 자기 마음을 밝힘으로써 그 조상들도 밝아지니깐요. 또 그 향으로다가 양식 삼으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런 도리를 알고 생각해야 그 체가 없는 그분이 그걸로 양식을 한다 이겁니다, 향으로.

그리고 물 한 다기 놓는 것은 정수를 말합니다. 정수를 말해서 이 정수에 입력되는 데 손색이 없으라고 하는 겁니다. 꽃을 한 다발 놓는다 하는 것은, 그 마음들도 모두 사람들의 꽃입니다. 마음이 웃고 살라 하는 그 뜻에서 그 향기가 접합니다. 그거는 영령과 산 사람 자식들과 똑같이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그 자리에 있지 못해서 어떡하나, 가 보지 못해서 어떡하나 해도, 그 못 가게 돼서 못 가도 내 마음이 그렇게 돼 있으면 뭐, 그냥 한 찰나에 그냥 마음의 도리를 읽고 한 찰나에 응접하십니다. 이 도리가 얼마나 광대무변한지 모릅니다. 이걸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서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꽃공양! 다기공양! 향공양! 청수공양! 떡공양! 공양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일체 뭘로 쓰느냐 하면 공생이며, 보이고 안 보이고를 떠나서 공생이며 공심이며 공체며 또 공용이며 공식이다. 이게 죽은 영령들이 나한테 그 마음을 읽고 찰나에 들고 나고 들고 나면서 그 조상들이 다 이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체가 없기 때문에 공부를 못 하거든요. 부닥침이 없으니 못 하니까 산 자기 자손들을 영접해서, 그 사람 당사자는 몰라도 그냥 들어서 그 마음을 읽어서 배우고 그 마음을 읽어서 배우고 이러거든요. 그것이 바로 보살행이자 보살이 응신으로 화해서 여러분들 앞에 그렇게 공부하게 하려고 모두 애쓰고 계십니다.

보이는 여러분들만큼 영령들도 조상님들도 여기 다 와서 계십니다. 여러분들 몸을 좇아서 말입니다. 이 도리를 여러분들이 본다면 기가 막히고 아프고 눈물이 한없이 쏟아질 정도로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당장에 보이지 않고 이해가 잘되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놓고 "상 옆에 또 물 한 그릇 놔라, 큰 그릇에다가." 하는 것은 거기서 그 한, 정수 바다에서 말입니다, 바다에서 몸을 씻고 정수로 이루게 된다 이겁니다. 정수에 입력이 되면 그 입력이 다 현실로,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이 다 겸해서 입력이 돼서 나오니까 과거를 문제를 삼을 게 하나도 없죠. 과거가 현실이 되고 미래가 현실이 되니까요. 이 도리가 아주 묘한 도립니다. 알고 보면 쉽고 모르고 보면 아주 복잡하고 그런 거죠.

그런데 어떤 스님이 그러셨거든. 떡 하나를 아니 놔도 될 수 있는 거라고. 천도라는 것은 떡 하나를 아니 놔도 되고, 아니 놓고 할 수만 있다면 어느 스님이든지 안 놓고 해도 돼요. 하다못해 촛불 하나 없어도 마음의 촛불을 켜고 하니까요. 촛불은 보이는 것만 촛불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아무것도 놓지 않고 하면 먹을 게 없지 않으냐 그런다면 왜 먹을 게 없습니까? 모두 차려서 먹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먹으면 조상들도 먹고 여러분들이 굶으면 조상들도 굶는데.

아, 여러분들이 둘 아닌데, 모두가 같이하시고 있는데, 응감을 하시는데, 내 몸뚱이 속의 생명들도 다 같이 더불어 같이 응감을 하는데 뭐가 걱정입니까? 응감을 안 하고 향으로 양식을 삼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도리를 알면 세상천지가 바로 내 거가 됐다가, 처음에는 내 거가 됐다가 다 버렸다가 다시금 주워 담아서 베풀어 주는 바로 부처님이 되셔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그러한 방편을 안 쓸 수가 없어서 그럽니다.

지금 우리는 허공중에 공 하나가 둥둥 떠 있는데 그 공 속에서 우리는 갇혀서 살고 있어요. 갇혀서 살고 있는데 우리가 그 육법공양을 올리는 원인은 '이 공 속에서 좀 벗어나게 해 주소서.' 하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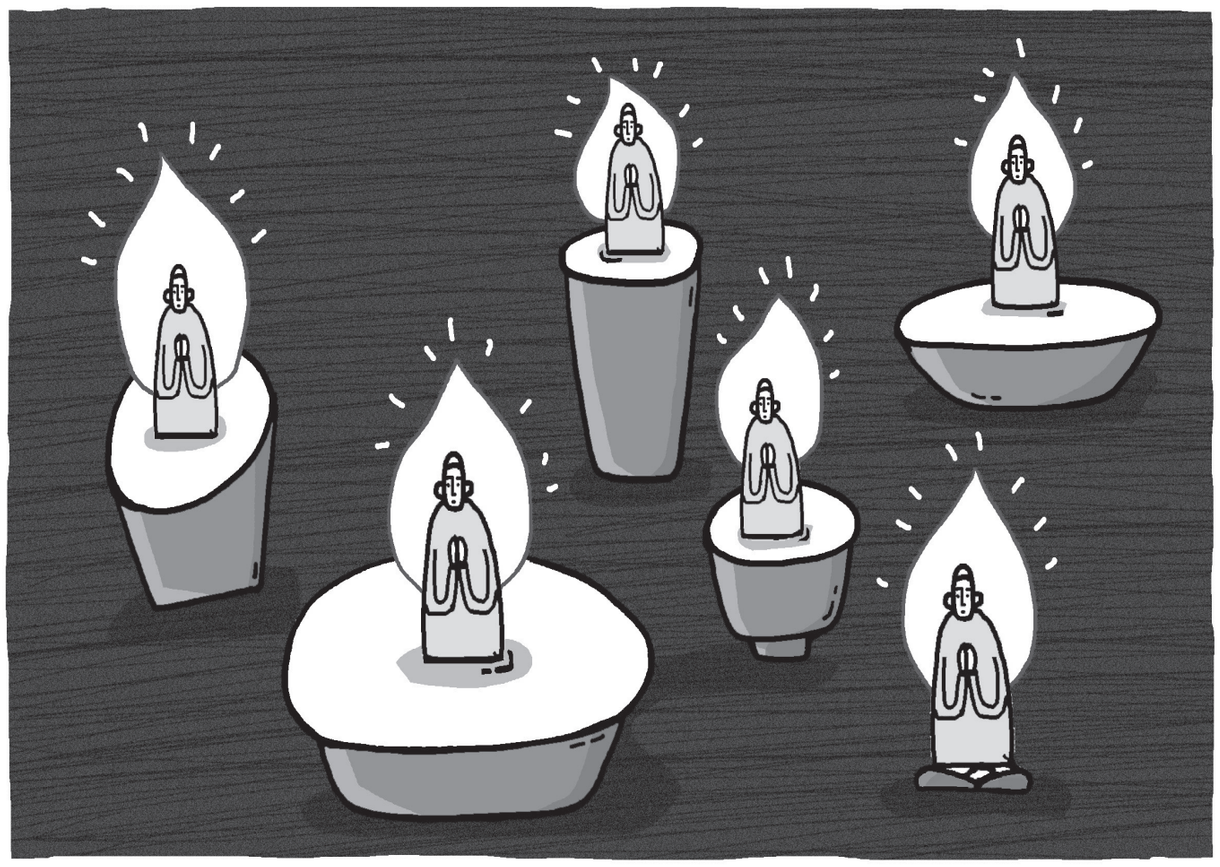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일체유심조라는데

질문 요즘은 제가 몸이 힘드니까 마음까지도 우울해지면서 힘이 쏙 빠집니다. 일체유심조라는데 정말 어떻게 마음을 먹어야 이 몸의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을는지요.

답변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사형선고를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형선고에다가 무기 집행유예를 받고 한 계단 한 계단씩 조심스럽게 마지막 계단까지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얼음판 같은 계단을 걸어가는 도중에, 그 계단을 정글이라고 한다면 이게 공부하는 데의 정글이라고 하고, 사람이 태어나서 죽으러 가는 그런 길을 한 계단 한 계단 걷는다고 말한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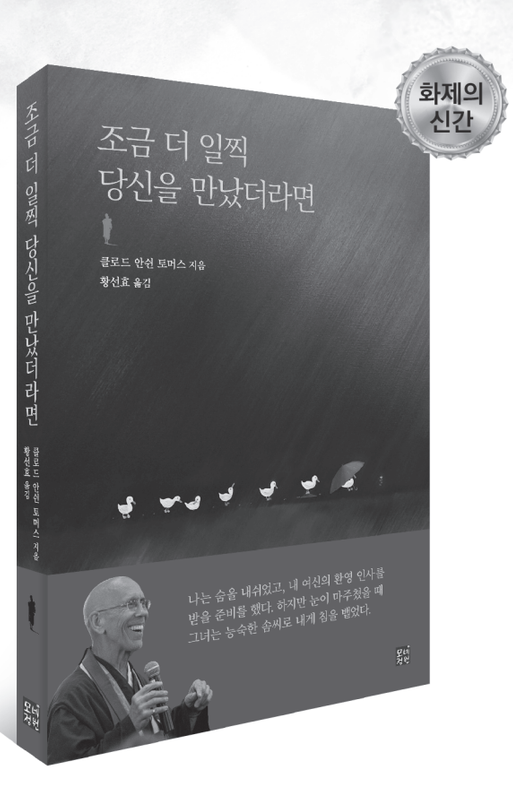
그런데 거기에 무슨 사단이 그렇게 많아서 그 길을 똑바로 걷질 못하고, 온통 그냥 끄달리면서 이것 때문에 죽는다고 피하고, 사자가 온다고 피하고, 정글에서 어떤 풀이 몸을 감으면 또 안 감기려고 피하고, 이렇게 피하다 보니까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어떤 게 닥쳐도 피하지 말라 이겁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가도 아니 되고 뒤로 물러서도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둘이 아닌 까닭을 알면 한 찰나에 내가 풀이 될 수 있어서 내 몸을 말아서 피를 빨아 먹는 어떠한 물체가 있다 할지라도 자기 피를 자기가 먹을 수는 없는 겁니다. 이건 마음의 장난이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풀도, 무정물도 식물도 다 마음이 있는 겁니다. 생시에 내가 '그 마음이 체가 없어서 너와 내가 모두 둘이 아니게 돌아가는데 뭘 그래!' 하고 거기 놨을 때에 바로 꿈에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꿈과 생시가 둘이 아닌 까닭입니다. 그러니까 구렁이가 닥치든지 또는 사자가 닥치든지 어떠한 게 닥쳐도 궁색하게 피하지 말고, 가정에서 어떠한 애고가 닥치든 병고가 닥치든, 어떠한 문제가 닥쳐도 피하지 말란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몸속에 들어 있는 의식들이 다 딴 사람입니까? 딴 데 있는 겁니까? 내 한 물체 속에 들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물체 속에 들어 있는 그것은 바로 별성들이요, 나, 이 모체(母體)가 전체를 담아 가지고 있는 그 자체는 혹성입니다. 이름을 지어서 그렇게들 부르니까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혹성이 따로 있고 별성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게 움죽거릴 때, 위장에서 움죽거릴 때 내가 움죽거렸다고 하겠습니까, 간장에서 움죽거려

☞ 22면으로 계속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클로드 안쉰 토머스 지음 / 황선효 번역 / 232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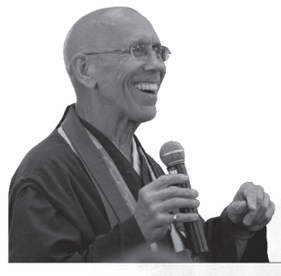
전쟁에서 사람을 죽였다고 고백하는 한 전쟁 영웅이
지옥 같은 트라우마 끝에 얻어낸 삶과 고통에 대한 실증적 깨달음의 책

고통을 삶의 또 다른 기회로 만든 사람의 이야기

조금 더 일찍
당신을 만났더라면

우리는 고통을 통해서 치유를 향해 간다.

세상은 우리에게 고통은 적이라고 가르친다.
우리는 불쾌하고 실망스럽고 힘든 것은 거부하라고 끊임없이 주입받는다.
"이 모든 고통이 왜 필요한가? 행복하자! 즐기자!" 하지만 고통은 우리의 적이 아니다.
건너편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은 고통과 슬픔을 통해서다.
반대편의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진정으로 알고 느낄 수 있는 것은 고통과 슬픔을 통해서이다.



지은이 클로드 안쉰 토머스

10대 후반의 어린 나이로 베트남 전쟁에 파병되어
항공훈장과 공군수훈십자훈장을 비롯한
수많은 훈장과 상을 받은 전쟁 영웅이다.
전쟁에 대한 심각한 트라우마로 죽음 직전까지 갔던
그는 비영리 기구인 'Zaltho Foundation'을 창립해
미국과 유럽 등 세계 각 곳에서 평화와
비폭력에 대한 강연 및 순례 활동을 하는
명상수행자로 거듭났다.

모네의정원 TEL. 02-732-1520 FAX. 02-6442-1521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 정가 ~~14,000원~~ ⇨ **12,600원** (배송비 별도)